

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무재해 달성 건설참여자 안전회의 개최

정찬남 기자 / 기사작성 : 2025-02-19 18:01:13



▲ 해남완도지사, 18일 정효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사로 초빙해 위험성평가 방법 등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강연 / 해남완도지사 제공

[해남=정찬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(지사장 김대성)는 19일 수급업체(21개) 및 공사감독 대상으로 무재해 달성 건설참여자 안전회의를 개최했다.

이번 회의는 수급업체 및 公社직원 대상으로 총40명이 참석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, 청렴이행각서 교환, 건설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공유 했다.

특히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정효석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위험성평가 방법 등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연했다.

김대성 해남완도 지사장은 안전경영방침(CEO 방침)을 전달함과 동시에 "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의 법적 사항 이행 및 도서·소규모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"를 당부했다.

또한, 청림이행각서 서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농어촌공사의 "청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"을 다짐했다.

[저작권자 © 시민일보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 - <http://www.siminilbo.co.kr>]